

# “춤으로 뜨거워진 나주”...‘더 시티 인 나주’ 성황

### 글로벌 스트리트댄스 문화교류 프로젝트 화제 동신대 RISE사업단-나주문화재단 공동 주관

동신대학교 RISE사업단 시군동반성장 협업센터와 나주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한 글로벌 스트리트댄스 문화교류 프로젝트 ‘더 시티 인 나주(The City in NAJU)’가 지난 9~10일 나주정미소와 동신대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청소년, 대학생, 국내의 댄서 등 800여명이 참여해 나주를 글로벌 청년문화와 예술 교류의 장으로 만들었다. 해외 유명 스트리트댄서들이 참여한 교육과 배틀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첫날인 9일에는 나주정미소와 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 무용실에서 글로벌 문화교류형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나주정미소에서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뚝딱이 워크숍’이 열려 프랑스 출신 Miguel, 태국의 Toppy, 일본의 Seiya 등 세계적인 스트리트댄서들이 글로벌 문화 체험형 수업과 진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동신대 체육관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 2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공연예술무용학과 재학생들은 행사 기획과 홍보, 현장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실전형 문화콘텐츠



동신대학교 RISE사업단 시군동반성장협업센터와 나주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한 글로벌 스트리트댄스 문화교류 프로젝트 ‘더 시티 인 나주(The City in NAJU)’가 지난 9~10일 나주정미소와 동신대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츠 운영 역량을 키웠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나주정미소에서 ‘더 시티 글로벌 스트리트댄스 배틀’이 펼쳐졌다. 합합 1대1 개인 배틀과 크루 팀 배틀이 동시에 진행된 가운데 Miguel, Toppy, Seiya를 비롯해 오천, 위자드, 마리드, 어바웃 크루 등 국내외 유명 댄서들이 무대에 올라 열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행사장 주변에는 지역 상권과 연계한 먹거리-문화 체험 부스도 운영돼 지역 소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신대 RISE사업단의 ‘공연예술리빙랩’ 실증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신규 문화 IP 확보와 세대통합형 문화공동체 활성화, 청년 인재 양성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강대홍 동신대 RISE사업단장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소멸 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나주가 글로벌 스트리트 문화 플랫폼이자 청년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신대학교 RISE사업단 시군동반성장협업센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 시티 인 나주’를 나주시를 대표하는 연례 글로벌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순기 기자 joinsu@gwangnam.co.kr



대한적십자사 순천시지사 구레봉사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희망풍차 결연지원사업’을 추진, 취약계층에게 희망풍차 꾸러미 17개와 쌀(10kg) 33포를 전달했다.

## 대한적십자사 순천시지사 구레봉사회, 취약계층 지원 나눔 문화 확산·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대한적십자사 순천시지사 구레봉사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희망풍차 결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 및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희망풍차 꾸러미 17개와 쌀(10kg) 33포를 전달했다.

특히 전달된 쌀 33포는 구레봉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희망풍차 꾸러미는 컵쌀국수, 즉석밥, 국·탕류 등 영양 간편식과 발아식물세트 등으로 구성된 정서지원 키트와 마련돼 실질적인 생활 지원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금과 후원회비를 받아 추진됐으며,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김미경 대한적십자사 순천시지사 구레봉사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구레군 관계자는 “이번 활동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정서적 돌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레-김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 금호타이어, 사원 가족 동반 ‘힐링 프로그램’ 전북 임실 치즈테마파크서 피자 만들기 체험

금호타이어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원 가족 동반 ‘힐링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공장 화재 이후 생산 안정화와 복구를 위해 현장을 지켜온 사원들과 가족들의 사기 진작 및 정서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1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곡성공장 사원 및 가족 193명은 전북 임실 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해 치즈 및 피자 만들기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사내 행사를 넘어 체험·식사·문화 교류가 결합된 가족 참여형 힐링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주말 관광객 혼잡을 고려해 오전·오후 2개 타운으로 나눠 진행됐다.

24개월 이상부터 초등학교 이하 자녀

를 둔 가족들이 참여한 가족 간 추억을 쌓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스트림 치즈와 피자를 직접 만들고, 치즈역사관 및 홍보관 견학과 함께 테마파크 내 문화시설을 자유롭게 관람했다. 또한 프라마주 레스토랑에서 치즈돈가스 및 치즈육개장 식사를 함께하며 가족 간 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아이와 함께 직접 치즈와 피자를 만들며 오랜만에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며 “회사에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중심 조직문화 회복과 구성원 간 유대감 강화에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사원 및 가족 193명은 최근 전북 임실 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해 치즈 및 피자만들기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3월 방송인 김

제동씨를 초청해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조직 활성화 및 소통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인사

**광주MBC** ◇ 전보 김경영전략본부장 원승연 ▽방송분부장 김철원 △디지털본부장 서준배 △기술영상센터장 정승삼 △경영전략본부 경영심의광고팀장 최은환 △경영전략

본부 전략기획팀장 황동현 ▽방송본부 뉴스토리팀장 주현정 ▽방송본부 콘텐츠팀장 홍진선 △디지털본부 디지털제작팀장 김램장 정석훈 △디지털본부 사업팀장 직무대행 서두균

## “어버이날 유래, 여성 차별에 대한 반작용”

### 유성호 교수 ‘태마가 있는 인문학’ 3회차 강연 성료

행복한 인문도시 남구 실현을 위한 ‘태마가 있는 인문학’ 한국 현대사 분야 3회차 강연이 8일 오후 3시 광주 남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위안과 치유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성황리 열렸다.

예향 남구 주민의 인문학적 감수성과 소양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강연을 맡은 유성호 교수(한양대 국문과)는 걸어 다니는 문학인명사전처럼 비하인드 스토리를 따라가 그동안 축적해온 풍부한 문학적 경험과 사유, 작가들에 대한 숨겨져 있는 사연, 전보 남원 서남대 시절, 광주 대와 맺어진 인연 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준 뒤 본 강연에서는 강연날이 어

버날이었던 만큼 어버이날의 유래와 사연에 대해 먼저 들려주면서 강연을 풀어갔다.

유 교수는 원래 어버이날이 양쪽 부모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한쪽을 지칭한 어머니날이었다고 언급했다.

유 교수는 “저희 어릴 때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날이었다. 그래서 카네이션은 어머니날한테만 달아 드렸다. 이는 오랜 여성 차별의 역사에 대한 반작용이었다”면서 “광복 이후 모든 기념일에 노래를 불러 그날을 기렸다”고 말했다.

원래 유 교수의 강의는 딱딱하게 강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재미있게 풀어가는



‘위안과 치유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유성호 교수

성향이 강했다. 달변가적 말 솜씨가 뛰어나 한번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가벼움 속에서 진지하게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이날 강연에 나선 유 교수는 그동안 문화

과 종교 및 역사에 대한 글쓰기와 강연을 지속해 왔으며, 시 평론에 천착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순서인 1회차는 오는 15일 ‘시와 형식’이라는 타이틀로 열릴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게시판

**알림** △일기정양리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상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를레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은세 (음력 3월 26일)

- |                           |                            |                           |
|---------------------------|----------------------------|---------------------------|
| 48년생 지인의 도움으로 행운을 잡게 된다   | 49년생 매끄럽지 못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 50년생 금전과 관계된 일들이 뜻대로 안된다  |
| 60년생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가 있다   | 61년생 부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날     | 62년생 현재까지 막혔던 일에 희망이 보인다  |
| 72년생 하늘의 뜻이 귀하의 뜻이니 이뤄진다  | 73년생 지금 일에 끈질기게 매달려라       | 74년생 노력한 문서가 남에게 돌아갈 수 있다 |
| 84년생 제3자로 부부사이의 다툼은 금물    | 85년생 만족할 만한 결과로 일이 마무리 된다  | 86년생 친구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행동할 때  |
| 96년생 충고를 귀담아 들을 때         | 97년생 우정사랑 서로 마음 맞으니 즐거운 날  | 98년생 지금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       |
| 51년생 깊은 산에서 길을 잃어 헤매는 날   | 52년생 복잡해질 것이니 체계를 잡자       | 53년생 열렬히 환영 받는다           |
| 63년생 예상했던 대로 이뤄질 것이다      | 64년생 투자 유혹이 많은 날           | 65년생 소송은 당기고 매매는 미뤄라      |
| 75년생 기쁨이 조성되면서 처리되는 형국    | 76년생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 77년생 큰일을 벌여놓게 되면 감당 못한다   |
| 87년생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라       | 88년생 결과가 연연하니 실력 발휘가 안된다   | 89년생 기회가 봐게 빛나겠다          |
| 99년생 무심코 던진 말이 화근이 될 수 있다 |                            |                           |
| 54년생 지나친 생각이 금물이다         | 55년생 늦바람이 더 무서운 법          | 56년생 귀하게 하는 편히 훨씬 편할 것이다  |
| 66년생 지인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 67년생 근심이나 집안에 우환이 있을 것이다   | 68년생 냉정 관계 부부 사이 좋아지는 날   |
| 78년생 힘든 일이 생겨도 의지할 곳이 없다  | 79년생 거레가 끊어지면 인연도 끊어진다     | 80년생 새로운 아이디어로 미래가 밝아진다   |
| 90년생 횡단한 일에 지면할 수도 있다     | 91년생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잡아라      | 92년생 각별히 교통사고를 주의하라       |
| 57년생 변수가 생겨서 곤혹스럽겠다       | 58년생 유혹에 넘어가면 후일에 후회하게 될 것 | 59년생 톱밥과 상성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
| 69년생 배우자에게 관심을 돌려 보라      | 70년생 지나치면 위험한 형국을 자초할 수 있다 | 71년생 표를 얻는 임정에 선다면 좋은 기회다 |
| 81년생 화젯거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 82년생 차분한 마음 자세와 포용력이 필요하다  | 83년생 잘못된 제 맛, 못되던 조상 탓    |
| 93년생 말이 화근 되니 남의 말을 삼가라   | 94년생 기존 방식대로 이행하라          | 95년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